

	<h1>보 도 자 료</h1>	작성과	국가기록원 연구협력과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9년 7월 15일(월) 조간 (7. 14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담당자	과 장 김형국 주무관 이혜원
연락처		042-481-6247 042-481-6264	

## 한-유네스코,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협정 체결

### - 유네스코 기록유산 분야 국제기구 세계 최초 설립 -

-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(원장 이소연)은 7월 12일 16시30분(현지시간) 프랑스 파리에서 대한민국 정부(이병현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)와 유네스코(오드리 아줄레 사무총장)가 만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(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, ICDH)를 한국(청주시)에 설립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효과적인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사업 이행을 지원하고 인류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보편적 접근에 대한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.
- 유네스코는 총 5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, 분야별로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를 유치한 해당국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.
- 이번에 설치되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(CI 섹터)의 기록유산 관련 센터로 우리나라가 위탁운영하게 된다.
- 이로써,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기록유산분야 국제기구가 출범하게 되었고, 대한민국은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교육(아태국제이해교육원), 문화(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), 인문사회과학(국제무예센터), 자연과학(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)에 이어 정보커뮤니케이션(국제기록유산센터)까지 5개 분야 전부를 설립한 국가가 되었다.

- 이번 협정은 이러한 국제기록유산센터(ICDH)의 설립목적과 역할, 기능,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있다.
  - 센터의 주요기능은 세계기록유산사업 지원으로 ①다양한 국가들의 경험과 협력을 토대로 글로벌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정책 연구·개발, ②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, ③세계기록유산 사업 및 성과에 대한 홍보, ④세계기록유산 등재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맡게 된다.
- 국제기록유산센터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재정운영을 맡고, 청주시는 부지를 제공해 센터건축을 담당할 예정이다.
  - 국가기록원은 올해 안에 법인 설립 및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, 2020년 말까지 충북 청주시 직지특구에 센터 건물 건립이 완공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.
-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은 “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을 계기로 기록 분야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, 기록유산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.”라고 밝혔다.